# 동종이식 장기제공 法的 합법화 급선무

## 초전도 냉동보전법 이용 성공률 1백%

### 서울대병원 흉부외과팀

동종 이식편이 국내에서 심혈관계통의 질환 치료에 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제공이 법적으로 합법화되고 윤리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심장사한지 24시간이내에 사체의 심장에서 채취한 동종이식편이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감염,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조직보전의 불완전성등이 첨단의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팀(盧浚亮, 金容珍, 安赫 李正烈 교수)는 지난 93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 41례의 초저온 냉동보전법으로 처리된 동종 이식편을 이용한 심혈관계 수술을 시행한 결과 1백%에 이르는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팀이 사용한 동종이식은 뇌사자, 심장피이식자, 24시간 이내의 사체(1례)로 부터 적출된 심장에서 채취했으며 B형간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결핵, 감염, 패혈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종이식 판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심장은 근위부 대동맥, 폐동맥을 포함하여 적출한 후 4도C 생리식염수나 Hank용액내에서 박리하여 대동맥의 경우 승모판 및 좌심실벽을 판막도관 형태로 제단하고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결찰했으며 폐동맥판막도 비슷한 요령으로 도관형태로 적출했다.

이팀은 41례의 동종 이식편 가운데 37례를 선천성 심기형의 우심실 유출로 재건에 사용했으며 2례는 후천성대동맥 판막의 대치용으로 사용했다.

선천성 심기형 37례중 36례는 폐동맥 폐쇄를 동반한 활로씨 사징증, 양대동맥 우심실기시증, 자가폐동맥을 이용한 좌심실 유출로 재건술후의 우심실 유출로 재건등에 이용됐으며 나머지 3례는 동맥간 환아에 쓰여졌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팀이 시행한 동종이식 판막 또는 판막도관 삽입의 결과는 비록 단기성적이지만 일부 선천성 및 후천성 심혈관 질환의 대용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면역반응의 역할에 대한 결론이 아직 없다는 점과 15년이후의 내구성 의문이 동종이식편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독신청
717-0927~8